





<As usual at bar>, 오일 90.9x72.7cm, 2020



<As usual on the bed>, 오일 90.9x72.7cm, 2020

Q. 이 두 작품은 각각 어떤 공간에서 촬영된 것인가요?

A. 이 두 작품은 각각 2018년 11월 <바다의 기억> 전시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바와 침대에서 촬영된 것인데, 이 두 공간은 각각 작가의 일상에서 중요한 공간입니다. 바는 작가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침대는 작가의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이 두 공간은 각각 작가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두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과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작가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두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과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작가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두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과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www.leeunsae.com](http://www.leeunsae.com)





「The Tourist」 〇〇 〇〇, 〇〇〇〇71, 〇〇, 2020



<Barcelona Pavilion no.1>,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160x160cm, 2020



<Barcelona Pavilion no.2>,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160x160cm, 2020

Q.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A.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The Tourist」(〇〇〇〇71, 〇〇, 2020) 〇 〇 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

이 작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The Tourist>(2020) 작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관객은 작품을 관람하면서, 작품의 구성 요소인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그리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이 작품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관객은 작품을 관람하면서, 작품의 구성 요소인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그리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홈페이지: [www.heejoonlee.com](http://www.heejoonlee.com)

## ■ 작가 JEONG Geumh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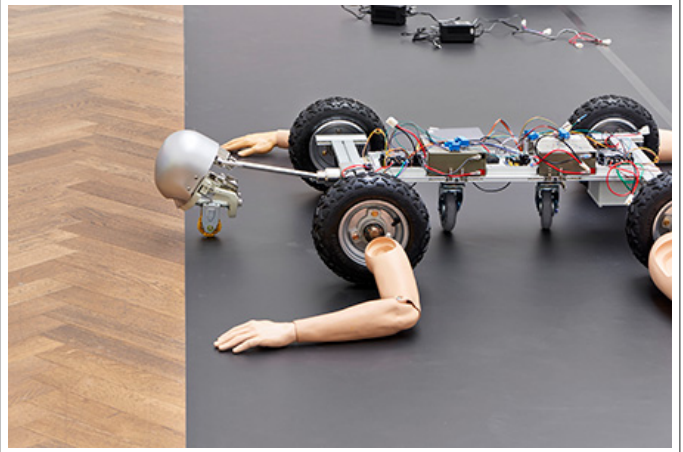
작가는 자동차, 전자, 그리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이 작품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8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이 작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이 작품은 DIY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Q. 이 작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A. 이 작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8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이 작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이 작품은 DIY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나간다.



700 000 00 00, 000 00, 00, 00, 2009



00000 00 000 00 00, 00000 00, 00, 000 2019



00000000 00 00, 0000 0000, 00, 2016

Q. 000 0000 000 00 000 0000 00 000 00 00 00.

A. 0000 00 0000 000 000 0, 0 000 00000. 0 0000 00 000 00000000 0000 0000 0000 <700 00>(LIG 000, 00, 2009), <000000>(0000 0000, 00, 2016), <00000 00 00>(000 00 00, 00, 000, 2019) 000 0 00 000 00 0 000. <700 00>000 000 000 00 0000 000000 000 0000, <000000>0 00 000 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0 0 00. <00000 00 00>000 00 000 00 000 00000, 0 000 00 000000 00000 0 00 0000 000.

00000000 00 0000 00 000 <00000 00 00>0 000 000 000 00000. 00 00 0 000 0000 0000 000000 0000 000 0000000 000000 00. 0 000 000 000 0

□□ □□ □□ □□□□ □□□□ □□□□□□□□ □ □ □□.

\* □□□□ □□ □□ □□□ □□□ □□ □□□□ □□□□□□□□ □□□ □□□□.